

# 행복한 책 읽기

## 루쉰 '아침 꽃을 저녁에 줌다' <참 권>

글 쓰는 행위가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해도, 골방에 틀어박혀 글이나 끄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감내하기 어려웠다. 지지부진한 습작은 금남로에 나뎠구는 돌맹이보다 가치 없는 시절이었다.



쓰겠다는 작가의식은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었다.

한 세기가 지난음에도 루쉰의 지적이 오늘날 한국사회에 똑같은 무게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기만 하다. 도시의 카페에서 한 끼의 짜장면보다 비싼 핸드드립 원두커피를 마시며 아이패드로 패션을 검색하다가 문득 헤어진 첫사랑의 인부가 공명해 페이스북을 연결하는 우리 청년들,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취업 걱정보다 더 큰 세상의 고민을 만날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더 좋

살아왔던 나날들은 보잘 것 없고 살아가야 할 앞날은 막막했다. 밤새 술잔과 고민을 주고받던 후배가 책 한 권을 나누고 갔다. 표지 가운데에 낫수염을 한 청년 사내가 영정사진처럼 박혀 있었다. 그의 글을 읽어나가자 영험한 약효처럼 마음이 움직였다. 아전인수였는지는 몰라도, 가능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견뎌졌고 글 쓰는 일에도 몰려서지 않으리라 마음먹게 됐다.

'아류정전'으로 익숙한 작가, 체질화된 학습과 미몽에서 깨어

## 지금까지 청맹과니로 살았다면

나지 못한 중국인들을 구원하려 했던 루쉰의 산문집이었다. 청나라 말기에 외세의 침탈로 자존심을 짓밟힌 중국인들의 가없는 영혼을 붙잡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외쳤다. 여인이 죽은 시대, 왜곡된 역사 인식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리한 칼날로 찢어냈다. 무심히 하루를 보내던 청년들에게 무딘 삶을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실을 일깨웠다.

은 삶을 위한 우리 사회의 성숙은 개발 일변도의 건설투자나 군비 증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교육과 복지에도 같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조화석(朝花夕拾)이라는 말에서 따온 '아침 꽃을 저녁에 줌다'라는 제목도 의미해설만 하다.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보다 꽃이 떨어지는 저녁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일 텐데, 아침 향기를 마다하고 왜 저녁에 꽃을 줬는지. 결실을 위한 인내, 농익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루쉰의 당부가 가슴을 친다. 밀림을 만나면 밀림을 개척하고, 광야를 만나면 광야를 개간하고, 사막을 만나면 우물을 파라. 이미 가시밭길로 막힌 낡은 길을 찾아 무엇 할 것이며, 너절한 스승을 만나 무엇 할 것인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읽어야 할 책이다. 통증을 느낀 뒤 병마와 싸워야겠다고 결심한 환자처럼, 지금까지 청맹과니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눈 뜨고 귀를 열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 숨소리까지 들린다 작은 표정도 숨길 수 없다

소극장에서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는 건 소극장 연극이 주는 매력 중 하나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제 16회 소극장축제가 2일부터 27일(평일 오후 7시30분·토요일 오후 4시·7시, 일요일 오후 4시)까지 공동예술극장, 씨디아트홀, 공연 1번지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지역 극단 뿐 아니라 서울에서 활동하는 극단 '한신'과 '마음같이'가 참여하며 처음으로 어린이극도 공연한다.

극단 '사람사이'가 무대에 올리는 '하얀앵두'(공동예술극장·2~6일)는 올해 무대에 오르는 작품 중 가장 눈에 띈다. 스타 희극작가 배삼식의 작품으로 2009년 동아연극상 희극상,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을 수상한 수작이다.

작품은 삶과 죽음, 탄생과 소멸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강원도 특유의 토속적인 사투리로 재미있게 풀어냈다. 강원도 영월 산골에 전원주택을 얻어 내려온 작가 반야산이 하얀앵두가 있던 할아버지 정원을 복원하려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극단 대표 송정우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정순기·유지영·송정우·이영환·박영환씨 등이 출연한다.

서울극단 '마음같이'는 '우리 이렇게'(공연일 12~13일)를 무대에 올린다. 현대철씨가 희곡과 연출을 쓴 작품으로 살레이는 첫 데이 트부터 이별까지 부부의 삶을 잔잔히 따라가는 작품이다. 멜로고 서툰 첫 키스, 결혼, 아이를 낳고 살아

가는 주인공들은 갑작스레 찾아온 치매까지도 함께 맞아가며 마지막 생을 정리한다. 현대철·유지영 등이 출연한다.

극단 '연우랑'은 '굿 닥터' 등으로 연극팬들에게 많이 알려진 날 사미인의 작품 '별을 수놓는 여자'(씨디아트홀·26~27일)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각색해 공연한다. 김용호씨가 연출하며 이현기·김혜리·이성재씨 등이 출연한다.

극단 '한신'은 '바다 한가운데서'(씨디아트홀·12~13일)를 공연한다. 아이들과 함께 연극공연장을 찾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극단 'DIC'은 고전 작품을 재미있게 각색한 '흥부와 놀부'(공연일 8~10일)를, 극단 '터'는 아이들에게 인기 높은 로봇을 주인공으로 한 '로봇 보보'(씨디아트홀·22~24

## 광주연극협회, 2~27일 '소극장축제'



'우리 이렇게'

극단	작품제목	장소	날짜
사람사이	하얀앵두	공동 예술극장	2~6일
DIC	흥부와 놀부	공연 일번지	8~10일
마음같이	우리 이렇게..	공연 일번지	12~13일
한신	바다 한가운데서	씨디아트홀	12~13일
터	로봇 보보	씨디아트홀	22~24일
연우랑	별을 수놓는 여자	씨디아트홀	26~27일
광주교대 극예술연구회	키스 할까요?	공연 일번지	26~27일

일)을 공연한다. 그밖에 광주교대극예술연구회는 '키스할까요?'(공연일 26~27일)를 무대에 올린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고흥 출신 송수권 시인 구상문학상 선정

# "우리말 지킴이 역할 하겠다는 심정으로 썼다"



시인 중에 가장 시골풍의 외모와 남도 정서를 지닌 이가 바로 송수권(73) 시인이다. 언제 보아도 밭에서 일하다가 금방 땀을 걸치고 나온 듯한 모습은 영락없는 '촌사람'의 외양이다.

그러나 마냥 '촌스러운 것' 만은 아니다. 시인의 내면에는 늘 전라도 정서와 어린 서정이 흐른다. 그렇다고 감수성만으로 시를 밀고 나가지도 않는다. 그만의 탄탄한 논리와 시어로 세상에 대해 울컥하는 목소리를 토해낸다. 그 울림이 결코 작지 않다.

고흥 출신 송수권 시인이 제 5회 구상문학상(상금 5000만원)에 선정됐다. 수상 시집은 '동'(서정시학). 그동안 송 시인은 소박하고 질박한 남도의 정서를 시로 형상화했다. 1975년 문학사상에 '산문'에 '대애'가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그는 대나무와 황토, 빨 등을 소재로 주옥같은 시를 써왔다.

"인터넷과 통신문화의 발달로 우리말이 날로 파괴되고, 남도 토속어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시인으로서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를 썼다."

시인은 우리말이 훼손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그동안 지속해온 작업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

다. "시인은 시로 말할 뿐"이라는 고전적인 명제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창작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분순 시인은 "30년 이상 된 중견 시인을 작품을 숙고한 결과 남도 토속어를 감칠맛있게 표현한 송 시인의 작품이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고 평했다.

송 시인은 구상 선선과의 남다른 인연도 전했다. 그는 "1975년 문화부 주최 광복 30주년 기념 서사시 공모전에서 '동학란'이 당선되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구상 선생이었다"며 "그때 맺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광주에 오면 항상 불러서 격려를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여순사건을 다룬 시집 '빨치산'으로 김삿갓 문학상을 수상했고 올해도 순천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상복이 많다. 조만간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사기굽 마을을 소재로 한 시집 '내고향 사기굽의 노래'를 출간할 계획이다.

한편 젊은 작가상(상금 1000만원)은 단편 소설 '처형'을 쓴 박혜지(38)씨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23일 영동포아트홀에서 열린다. 구상문학상은 구상(1919~2004) 시인을 기리기 위해 2009년 서울 영동포구와 구상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토의 시인' 조태일

### 5일 곡성서 추모행사

'국토의 시인' 조태일 14기 추모행사가 5일 곡성 조태일 문학관에서 열린다.

70~80년대 폭압적 현실에 시와 온몸으로 맞섰던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은 곡성 출신으로, 남도가 자랑하는 빼어난 서정 시인이자 저항 시인이다.

'저 숲속의 일렁이는 물결'(조태일 시 '모래·밭·바람·국토 39'의 구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조태일시문학관 답사, 시낭송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동순(전남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자랑스러운 곡성의 시인 조태일'을 주제로 강연하고, 곡성지역의 어린이 50여 명을 초청해 백일장대회와 사물놀이 등을 펼친다.

조태일 시인 추모문학기행은 시인이 재직했던 광주대 문학과 제자들이 주축이 돼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스승을 추모하는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태일 시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다. 문의 010-3618-559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상담시 공개

월출동 공장  
대지: 광주광역시 건물: 2353㎡  
감정가격: 21억6천만원 채권매각: 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 800㎡ 건물: 4834㎡  
감정가격: 69억3천만원 채권매각: 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 1760㎡ 건물: 2821㎡  
감정가격: 46억 채권매각: 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곳모빌은 분양 사무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45천(보증금 8천, 월800만),직영수입 별도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45천
-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시인구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45천
- \* 완도군 악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 장흥군 장평면 대지 및 전 13,165㎡ 매 3억45천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기타**

- \* 광산구 보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만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매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충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